

< 2020 생활과 윤리 해키iller 선지 ① >

1. 응용 윤리와 윤리 문제의 탐구
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3. 삶과 죽음의 윤리

작성자 : 피아노폴릭

1. 응용 윤리와 윤리 문제의 탐구

1. 윤리학은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사실'의 학문이다. (O, X)
2.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을 통해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직접적 해법을 제시한다. (O, X)
3. 응용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도덕적 탐구를 이행한다. (O, X)
4. 이론 규범 윤리학은 실천을 위한 윤리학 중의 하나이다. (O, X)
5.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 X)
6.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는다. (O, X)
7. 윤리학은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한 현실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학문이다. (O, X)
8. 기술 윤리학은 인간이 도덕적인 신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진술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 X)
9. 기술 윤리학의 도덕 원리는 의식주와 같은 관행이다. (O, X)
10. 응용 윤리학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O, X)
11. 메타 윤리학은 내면적 덕성에 대한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O, X)
12. 밀은 전적으로 옳은 통설마저도 논쟁을 거쳐 인간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O, X)
13. 기술 윤리학은 기술된 도덕적 현상과 문제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O, X)

14. 응용 윤리학에서 도덕 이론이나 도덕 원칙은 이차적 의미밖에 지나지 않는다.
(O, X)

15. 메타 윤리학은 “어떤 도덕적 준칙을 고수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O, X)

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1.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라고 본다. (O, X)
2. 벤담은 모든 쾌락의 질적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O, X)
3. 칸트는 행위의 결과에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O, X)
4. 칸트는 모든 준칙이 도덕적일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 (O, X)
5.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가르친다고 본다. (O, X)
6. 하버마스는 모든 강제성을 부인하는 협동적 진리 탐구를 중시한다. (O, X)
7. 칸트는 보편적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O, X)
8. 요나스는 인간의 선뿐만이 아닌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O, X)
9. 칸트는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하여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함을 주장한다. (O, X)
10. 요나스는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생명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O, X)
11.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호혜적 책임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O, X)
12. 공리주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단일적인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둔다. (O, X)
13. 칸트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화가 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다. (O, X)
14.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O, X)

15. 칸트와 달리 요나스는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해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O, X)

16. 요나스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책임의 주체로서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O, X)

17.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모두 결국에는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O, X)

18. 아리스토텔레스는 타고난 품성적 덕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O, X)

3. 삶과 죽음의 윤리

1. 플라톤은 죽음 이후 육체와 영혼이 참된 세계로 들어간다고 본다. (O, X)
2. 불교에서는 반복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탈을 해야 한다고 본다. (O, X)
3. 소크라테스는 육체는 필연적으로 소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본다. (O, X)
4. 불교에서는 죽음의 불안이 삼계의 윤회를 통해 극복된다고 본다. (O, X)
5. 불교에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삶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O, X)
6. 칸트는 자살을 현세의 행복 실현이라는 도덕 법칙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간주한다. (O, X)
7. 유교에서는 선비가 의(義)를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O, X)
8.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O, X)
9. 유교에서는 죽음의 고통과 불안에서 극복하기 위해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O, X)
10. 아우구스티누스와 칸트는 자살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본다. (O, X)
11. 칸트는 인간이 자기 보존이라는 제 1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O, X)
12. 칸트는 살고 있는 한 자신의 인격성 실현은 무조건적 의무라고 본다. (O, X)
13. 쇼펜하우어는 자살이 의지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을 부정적으로 본다. (O, X)
14.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O, X)

15.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O, X)
16. 야스퍼스는 죽음의 불안이 실존에게 극복될 수 없는 한계 상황임을 강조한다. (O, X)
17. 유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므로 자살을 가장 큰 불효로 보았다. (O, X)
18. 하이데거는 죽음이 인간이 세상 사람으로서 지향하는 모든 궁극적 가치와 목적들이 허망한 것임을 드러낸다고 본다. (O, X)
19. 장자는 신체와 세상의 일을 버리면 참된 생명이 완전히 실현된다고 본다. (O, X)
20.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악을 중지시켜주는 역할로서 열망해야 한다고 본다. (O, X)